

# 외국인 근로자의 음주동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하영미<sup>1</sup>, 박기수<sup>2</sup>, 조정의<sup>3\*</sup>

<sup>1</sup>경상대학교 간호대학 & 건강과학연구원, <sup>2</sup>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건강과학연구원, <sup>3</sup>거북백병원

## Factors Influencing on Problem Drinking in Foreign Workers for Drinking Motives, Acculturative Stress

Yeong-Mi Ha<sup>1</sup>, Ki-Soo Park<sup>2</sup>, Jeong-Eui Cho<sup>3\*</sup>

<sup>1</sup>College of Nursing &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up>3</sup>Baik Medical Center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근로자의 음주동기,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제음주의 관계를 파악하고,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은 G 시에 소재한 2곳의 조선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120명을 대상으로 2016년 10-12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위험음주는 39.2%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음주동기의 하위영역인 사교동기( $\beta=.368$   $p=.003$ )와 동조동기( $\beta=.337$   $p=.005$ )였고, 문화적응 스트레스 하위영역인 향수병( $\beta=-.197$ ,  $p=.009$ )으로 문제음주에 대하여 약 39.5%의 설명력을 보였다( $F=26.849$ ,  $p=.000$ ).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제음주를 예방하기 위해서 음주동기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활용한 알코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주제어 : 동기, 문제음주, 문화적응 스트레스, 알코올, 외국인 근로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relationships among drinking motives, acculturative stress and problem drinking, and then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f problem drinking in foreign workers. A total of 120 foreign workers recruited from two shipyards in G city. Self-reported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rom October to December, 2016. As a result, a rate of problem drinking in foreign workers was 39.2%. According to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ir problem drinking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social motives ( $\beta=.368$   $p=.003$ ) and conformity motives ( $\beta=.337$   $p=.005$ ) as a subscale of drinking motives and homesickness ( $\beta=-.197$ ,  $p=.009$ ) as a subscale of acculturative stress, explained 39.5% of the total variance ( $F=26.849$ ,  $p=.000$ ). Based on our results, an education program using drinking motives, acculturative stress should be developed to prevent problem drinking in foreign workers.

**Key Words** : Motives, Problem drinking, Acculturative stress, Alcohol, Foreign worker

### 1. 서론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근로자들의 임금상승과 노동시장의 고학력화 현상 등으로 인해 한국 근로자들은 임금이 낮고 일이 힘든 업종을 기피하기 시

작하였다. 산업계에서는 3D 업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금수준이 낮은 중국과 동남아시아로부터 많은 인력을 노동시장으로 투입하게 되었다[1]. 경제성장으로 인한 한국의 국가 위상 상승 및 교통·통신의 발달은 각 나라 간 문화교류 확대로 이어져 한국 노동시장 개방을

\*Corresponding Author : Jeong-eui Cho (dapt321@naver.com)

Received December 4, 2017

Accepted February 20, 2018

Revised January 15, 2018

Published February 28, 2018

가속화시켰으며,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대다수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1].

외국인 근로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안정을 달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타국생활과 힘든 업무 환경에서 오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유지가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2].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방해하는 근로와 관련된 어려움으로 장시간 노동, 저임금, 폭행, 괴롭힘, 임금체불, 열악한 작업조건, 한국인과의 차별, 폭언, 모욕, 산업재해, 직업병, 한국인 근로자와의 갈등 등을 들 수 있다[3].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 열악한 노동조건, 과도한 업무는 사회적·심리적 어려움을 유발하고[4], 애정과 지지의 대상인 가족과 분리된 생활은 외로움에 빠지기 쉽다[5].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피하려는 방법으로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6].

근로자의 문제음주는 근로자 개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족 관계나 대인관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7]. 특히, 문제음주는 간 질환,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정신건강문제, 가족관계 악화 등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근, 사고 및 생산성 저하,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8]. 그 결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문제음주에 관심을 가지고 근로자의 알코올 문제 해결을 위한 직업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Occupational Alcoholism Program; OAP)이 개발되어 현재의 직장인 지원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으로 확대·정착하게 되었다[9]. 이렇듯 여러 나라에서는 음주문제를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10] 사회적인 문제로 분류하고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11]. 2016년 우리나라에 취업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597,783명이며[12], 점점 외국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이들의 음주행위와 문제음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음주동기는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13],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의 활력을 위해 음주를 하거나 슬픔, 분노, 우울감,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음주동기가 발생한다고 하였다[14].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근로자들의 음주는 직장생활에서 발생하는 직업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음주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고, 회식 또한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는 한국적 조직문화 속에서 술을

권하는 직장분위기는 음주에 대한 사고동기를 더욱 강화시켜 음주 빈도를 높일 수 있다[15].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은 내국인들로부터 사회적 배제나 편견 또는 따돌림 등을 경험하는 빈도가 높고[16], 관용적이고 허용적인 한국의 음주문화로 인해 음주가능성이 높기 때문에[4] 외국인 근로자들의 음주행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주민들이 본국이 아닌 새로운 나라의 사회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말한다[17]. 이는 이주 국가에서의 차별, 언어문제, 지지체계의 상실과 실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고립감과 소외감 등이 포함된다[18]. 외국인 근로자들의 스트레스는 이주민으로서의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스트레스도 받고 있어 이중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출신 국가에 대한 편견이 있으며, 피부색이나 용모, 언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 직장에서 경험하는 차별은 심리적 고통과 불안을 증대시켜 결국 알코올 문제와 같은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19,20].

짧은 기간 빠르게 진행된 산업화를 통해 고도성장이룩한 우리나라는 어느 사회보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이다[21]. 근로자들은 직장 내 스트레스나 열악한 근로 환경, 남성 음주를 관대하게 바라보는 사회적 영향으로 음주에 노출될 기회가 많으며, 한국의 생산직 근로자의 음주 문제는 일반인이나 다른 직종의 근로자보다 더 심각함으로 인해 음주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7]. 특히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문제음주의 심각성이 큰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고, 이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나 다양한 직업 스트레스가 있어 문제 음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선행연구가 드물어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음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음주동기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업장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음주동기와 문화적응 스

트레스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G 시에 소재한 두 군데 조선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의 성인으로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에서 온 근로자
- 2) 자국어로 번역된 도구를 읽고 이해하며, 설문이 가능한 자
- 3)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자료 조사에 동의한 자

연구표본의 크기는 G-Power 프로그램 활용하여[22] 회귀분석을 위한 중간 효과크기( $d$ )=0.15, 검증력( $1-\beta$ ) 유의수준( $\alpha$ )=.05, 예측변수 12개로 하였을 때 총 120부가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문제음주

본 연구에서의 문제음주 도구는 WHO에서 알코올 의존을 포함한 알코올 사용 장애를 조기 선별하기 위해서 개발한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검사를 Lee, Lee, Lee, Choi, & Namkoog [23]이 한국판으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지난 1년을 기준으로 음주 양과 빈도(3문항), 알코올 의존 증상(3문항), 음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해(4문항)이었다. 각 문항은 0~4점으로 총 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문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위험 음주자 선별을 위한 AUDIT-K의 진단기준은 총점 10점 미만을 적정음주, 총점 10점 이상을 위험음주로 하였다[24]. Lee 등[2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4이었다.

### 2.3.2 음주동기

본 연구에서의 음주동기 도구는 Shin과 Han [24]이 성인의 음주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음주동기 척도 (Drinking Motive Scale)를 저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고양동기·대처동기·동조동기·사교동기의 4개 하위영역으로 이뤄졌으며, 각각의 음주동기는 4

개 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1점 '전혀 아니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음주동기 하위 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유형의 음주동기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Shin과 Han [24]의 연구에서 Chronbach's  $\alpha$ =.96이었으며, 하부영역별로 보면 고양동기 .76, 대처동기 .89, 동조동기 .80, 사교동기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6이었으며, 고양동기 .91, 대처동기 .91, 동조동기 .85, 사교동기 .88로 나타났다.

### 2.3.3 문화적응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Sandhu와 Asrabadi [25]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를 Cho [1]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저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다. 도구는 향수병 3문항, 의사소통의 어려움 4문항, 문화충격 4문항, 편견·차별 5문항, 직장에서의 어려움 5문항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4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긍정적인 5개 문항은 역환산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ho [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8이었다.

## 2.4 자료수집

본 연구는 G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 (GIRB-A16-Y-0030)을 받은 후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G 시에 소재한 대규모 조선소 2곳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의 목적, 방법을 설명한 후 허락을 얻었다. 조선소 내 사업장 쉬는 시간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설문지는 대상자들이 한국어 독해력이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문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자국어로 만들어져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국어로 번역된 설문지는 네덜어, 스리랑카어,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로 구성되었으며, 설문지 작성에 필요한 시간은 15-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자료수집은 2016년 10월-12월에 설문조사를 하였고,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적 분석을 하였다.

첫째,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음주의 차이는 t-test 혹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음주동기,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제음주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Table 1 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2.09±5.56세로 30대 67명(55.8%), 20대 41명(34.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 120명(100%)이었으며, 결혼은 기혼 70명(58.3%)이며, 종교가 있는 대상자 110명(91.7%)이었다. 출신 국가는 스리랑카 38명(31.7%), 태국 26명(21.7%)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 구사는 보통 60명(50.0%), 못함 41명(34.2%)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정도는 고졸 이상 96명(80.0%)으로 나타났으며, 체류 기간은 평균 3.89±2.61년이었으며, 2년~4년 미만 48명(40.0%), 4년 이상 45명(37.5%)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생산직 114명(95.0%)이었고, 근무경력 평균 3.53±2.72년이었으며, 2년~4년 미만 48명(40.0%)이었다. 주 근무시간은 평균 60.04±17.10시간이었으며, 60시간 이하가 73명(60.8%)이었다. 질환 유무에 없음이 104명(86.7%)으로 나타났고, 체질량지수는 평균 23.35±2.68kg/m<sup>2</sup>였고, 체질량지수 25kg/m<sup>2</sup> 이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23.3%였으며, 건강상태는 건강 73명(60.8%), 보통 45명(37.5%) 순으로 나타났다. 위험음주자 선별을 위한 AUDIT-K의 진단기준에 따라 적정음주 60.8%, 위험음주 39.2%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2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Age(year)	≤20	41(34.2)	32.09±5.56
	30~<40	67(55.8)	
	≥40	12(10.0)	
Gender	Male	120(100)	
Marital status	Single	50(41.7)	
	Married	70(58.3)	
Religion	No	10(8.3)	
	Yes	110(91.7)	
Nationality	Vietnamese	12(10.0)	
	Sri Lanka	38(31.7)	
	Indian	10(8.3)	
	Thailand	26(21.7)	
	Uzbekistan	22(18.3)	
Korean language ability	Poor	41(34.2)	
	Moderate	60(50.0)	
	Good	19(15.8)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24(20.0)	
	≥High school	96(80.0)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year)	<2	27(22.5)	3.89±2.61
	2~<4	48(40.0)	
	≥4	45(37.5)	
Type of occupation	Production worker	114(95.0)	
	Office work	6(5.0)	
Work experiences(year)	<2	34(28.3)	3.53±2.72
	2~<4	48(40.0)	
	≥4	38(31.7)	
Working hours/week	≤60	73(60.8)	60.04±17.10
	≥61	47(39.2)	
Comorbidity of disease	No	104(86.7)	
	Yes	16(13.3)	
Body mass index	18.5~<23	53(44.2)	23.35±2.68
	23~<25	39(32.5)	
	≥25	28(23.3)	
Subjective health status	Bad	2(1.7)	
	Moderate	45(37.5)	
	Good	73(60.8)	
Problem drinking	Proper drinking	73(60.8)	
	Hazardous drinking	47(39.2)	

### 3.2 대상자의 문제음주, 음주동기,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

대상자의 문제음주, 음주동기,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정도는 Table 2 와 같다.

대상자의 문제음주는 평균이 8.56±6.92점(범위 0-40 점)으로 나타났고, 음주동기는 평균이 2.15±0.96점(범위 1-5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은 사교동기 2.47±1.11

점, 대처동기 2.11±1.07점, 고양동기 2.06±1.07점, 동조동기 1.96±0.92점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평균이 2.59±0.56점(범위 1-5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으로 직장 내에서 어려움 2.88±0.66점, 의사소통 어려움 2.82±0.72점, 향수병 2.70±0.82점, 대인관계 어려움 2.57±0.23점, 문화충격 2.32±0.80점, 편견/차별 2.27±0.90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gree of Problem Drinking, Drinking Motives, Acculturative Stress (N=120)

Variables	Range	M±SD
Problem drinking	0~40	8.28±6.73
Drinking motives	1~5	2.15±0.96
Social motives	1~5	2.47±1.11
Coping motives	1~5	2.11±1.07
Enhancement motives	1~5	2.06±1.07
Conformity motives	1~5	1.96±0.92
Acculturative stress	1~5	2.59±0.56
Difficulties in the workplace	1~5	2.88±0.66
The difficulty of communicating	1~5	2.82±0.72
Homesickness	1~5	2.70±0.82
Difficultie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1~5	2.57±0.23
Cultural shock	1~5	2.32±0.80
Prejudice/ discrimination	1~5	2.27±0.90

###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음주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음주는 근로시간 ( $t=2.67, p<.009$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참고).

### 3.4 문제음주, 음주동기,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문제음주, 음주동기,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문제음주와 음주동기( $r=.590, p<.001$ )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하위변인은 구체적으로 동조동기( $r=.587, p<.004$ ), 사교동기( $r=.582, p<.001$ ), 고양동기( $r=.513, p<.001$ ), 대처동기( $r=.498, p<.001$ )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문제음주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r=.278, p<.002$ )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하위변인은 구체적으로 편견/차별( $r=.311, p<.001$ ), 직장 내에서 어려움( $r=.242, p<.001$ ), 대인관계 어려움( $r=.237, p<.001$ ), 의사소통 어려움( $r=.215, p<.05$ )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음주동기와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r=.503, p<.001$ )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3. Differences of Problem Drinking by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20)

Variables	Categories	Problem Drinking	t/F	p
		M±SD		
Age(year)	≤20	7.32±5.52	2.89	.060
	30~<40	8.10±7.03		
	≥40	12.50±7.76		
Marital status	Single	7.98±6.64	-0.40	.687
	Married	8.49±6.84		
Religion	No	11.00±9.10	1.34	.182
	Yes	8.03±6.47		
Korean language ability	Poor	9.78±7.06	2.09	.129
	Moderate	7.92±6.66		
	Good	6.16±5.80		
Education level	≤ Middle school	9.58±6.62	1.07	.289
	≥ High school graduation	7.95±6.98		
Length of residence in Korea(year)	<2	7.07±6.65	1.53	.222
	2~<4	7.69±5.13		
	≥4	9.62±8.13		
Type of occupation	Production worker	9.20±7.45	1.89	.075
	Office work	6.98±5.39		
Work experiences (year)	<2	7.62±7.50	0.96	.385
	2~<4	7.75±5.29		
	≥4	9.53±7.60		
Working hours/week	≤60	9.95±7.67	2.67	.009
	≥61	6.71±5.32		
Comorbidity of disease	No	8.39±6.87	0.49	.623
	Yes	7.50±5.89		
BMI	18.5~<23	7.42±5.12	2.11	.126
	23~<25	10.08±8.08		
	≥25	7.39±7.11		
Subjective health status	Bad	12.50±0.71	2.99	.054
	Moderate	9.94±6.86		
	Good	7.10±6.51		

### 3.5 대상자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문제음주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 변수(근로시간)와 음주동기의 하위변인인 고양동기, 대처동기, 동조동기, 사교동기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변인인 향수병, 의사소통 어려움, 문화충격, 편견/차별, 직장에서 어려움,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요인들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공차한계 값은 0.356~0.915로 1.0이하로 나타났다. VIF 값은 1.090~2.807으로 10보다 낮음으로

Table 4. Correlation between Problem Drinking, Drinking Motives, Acculturative Stress (N=120)

Variables	x1	Drinking motives					Acculturative stress						
		x2	x3	x4	x5	Total	x6	x7	x8	x9	x10	x11	Total
	r(ρ)	r(ρ)	r(ρ)	r(ρ)	r(ρ)	r(ρ)	r(ρ)	r(ρ)	r(ρ)	r(ρ)	r(ρ)	r(ρ)	r(ρ)
x1		1											
Drinking motives	x2	.587** (.000)	1										
	x3	.513** (.000)	.828** (.000)	1									
	x4	.582** (.000)	.798** (.000)	.752** (.000)	1								
	x5	.498** (.000)	.812** (.000)	.875** (.000)	.746** (.000)	1							
	Total	.590** (.000)	.926** (.000)	.937** (.000)	.897** (.000)	.931** (.000)	1						
Acculturative stress	x6	-.003 (.975)	.245** (.007)	.335** (.000)	.281** (.002)	.349** (.000)	.330** (.000)	1					
	x7	.215* (.018)	.267** (.003)	.425** (.000)	.349** (.000)	.293** (.001)	.364** (.000)	.399** (.000)	1				
	x8	.141 (.124)	.297** (.001)	.368** (.000)	.224* (.014)	.351** (.000)	.336** (.000)	.400** (.000)	.525** (.000)	1			
	x9	.311** (.001)	.376** (.000)	.472** (.000)	.403** (.000)	.445** (.000)	.461** (.000)	.446** (.000)	.559** (.000)	.651** (.000)	1		
	x10	.242** (.008)	.298** (.001)	.358** (.000)	.237** (.009)	.282** (.002)	.318** (.000)	.100 (.277)	.248** (.006)	.240** (.008)	.483** (.000)	1	
	x11	.237** (.009)	.302** (.001)	.391** (.000)	.329** (.000)	.354** (.000)	.375** (.000)	.374** (.000)	.442** (.000)	.475** (.000)	.674** (.000)	.437** (.000)	1
	Total	.278** (.002)	.413** (.000)	.540** (.000)	.419** (.000)	.477** (.000)	.503** (.000)	.585** (.000)	.717** (.000)	.761** (.000)	.903** (.000)	.597** (.000)	.774** (.000)

x1(Problem drinking), x2(Enhance-ment motives), x3(Coping motives), x4(Conformity motives), x5(Social motives), x6(Homesickness), x7(The difficulty of communicating), x8(Cultural shock), x9(Prejudice/discrimination), x10(Difficulties in the workplace), x11(Difficultie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Dubin-Watson 통계량이 2.182으로 2에 가까이 있어 자기상관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잔차분석 결과 표준화된 잔차의 범위가 -9.640~17.774로 등분산성을 만족하였고, 정규성도 확인되었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근로시간과 음주동기의 하위 변인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하위영역의 변인을 투입한 결과 대상자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음주동기 중 사교동기 ( $\beta=.368$   $p=.003$ ), 동조동기( $\beta=.337$   $p=.005$ )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 향수병( $\beta=-.197$ ,  $p=.009$ )이었으며, 문제음주에 대하여 약 39.5%의 설명력을 보였다( $F=26.849$ ,  $p<.001$ ).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Problem Drinking (N=120)

Variables	Categories	B	SE	$\beta$	t	p
(Constant)		2.255	1.790		1.260	.210
Drinking motives	Social motives	2.228	.724	.368	3.079	.003
	Conformity motives	2.490	.879	.337	2.832	.005
Accultu-rative Stress	Homesickness	-1.623	.613	-.197	-2.646	.009
Adjusted R <sup>2</sup> =.395, F=26.849, p<.001						

#### 4. 논의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음주동기,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제음주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제음주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AUDIT-K의 문제음주 진단기준에 따라서 위험음주자를 선별한 결과 본 연구대상자인 외국인 근로자의 위험음주(AUDIT-K 총점 10점 이상) 비율은 39.2%로 나타났다. 동일한 진단도구인 AUDIT-K를 사용하여 한국인 남성 근로자의 위험음주 비율은 65.5%였고[15], 우리나라 남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6.9%이었다[26]. Ha & Jung [15]의 연구에서 한국인 근로자는 4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32세로 젊고, 20대와 30대 연령층의 비율은 높은 반면 40대 이후 연령층의 비율이 낮은 것과 같은 인구학적 차이가 음주행동과 문제음주 차이의 한 요인으로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7]. 서남아시아 이주노

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에 따른 문제음주자의 비율은 40대 이상이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가 22.2%, 19~29세가 16.4%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문제음주자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28].

본 연구에서 한국 체류 기간에 따른 문제음주는 4년 이상, 2~4년 미만, 2년 미만 순으로 한국 체류 기간이 길수록 문제음주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남아시아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6년 이상 체류자의 문제음주 비율이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6년이 22.5%, 3년 이하가 16.4%순으로 체류기간이 길수록 문제음주자의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했다[28]. 본 연구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체류 기간은 평균 4년 미만으로 체류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이들 근로자의 39% 이상이 위험음주 수준의 술을 마시는 것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며, 한국인 근로자에 비해 이들의 위험음주 비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의 술 소비량이나 음주허용 분위기 등의 생활에 익숙해지고, 한국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문제음주 비율이 높아질 위험이 있음을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의 음주행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음주동기는  $2.15 \pm 0.96$ 점(범위 1-5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은 사교동기  $2.47 \pm 1.11$ 점, 대처동기  $2.11 \pm 1.07$ 점, 고양동기  $2.06 \pm 1.07$ 점, 동조동기  $1.96 \pm 0.92$ 점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음주동기는  $2.4 \pm 0.68$ 점(도구범위 1-5)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은 사교동기  $3.1 \pm 0.89$ 점, 대처동기  $2.2 \pm 0.91$ 점, 동조동기  $2.2 \pm 0.78$ 점, 고양동기  $2.1 \pm 0.81$ 점으로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15]. 한국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동기와 알코올 소비의 관계 연구에서, 음주동기 중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사교동기이며, 사교동기와 대처동기가 높을수록 음주량과 음주빈도가 높게 나타났다[30]. 4개의 음주동기 하위 영역 중에서 사교동기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친해지기 위해 술을 마시는 동기이며, 대처동기는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거나 조절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동기로 대처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나 화·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가 해소될 때까지 술을 마시게 되므로 음주빈도와 상관없이 폭음하는 경우가 많고[31], 이런 음주행위는 문제음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15].

본 연구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평균이  $2.59 \pm 0.56$ 점(범위 1-5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으로 직장 내에서 어려움  $2.88 \pm 0.66$ 점, 의사소통 어려움  $2.82 \pm 0.72$ 점, 향수병  $2.70 \pm 0.82$ 점, 대인관계 어려움  $2.57 \pm 0.23$ 점, 문화충격  $2.32 \pm 0.80$ 점, 편견/차별  $2.27 \pm 0.90$ 점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는 직장에서의 어려움, 지각된 차별감, 문화충격, 대인관계의 어려움 순으로 높게 나타나 문화적응 스트레스 하위영역 중에서 직장 내에서의 어려움 정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1]. 직장 내에서 어려움은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현장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를 반영하는 것으로 직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그들의 주요한 삶의 영역이고 한국문화와 한국인들을 접촉하게 되는 일차적인 장소로 뚜렷한 경제적 목표가 있어 입국한 그들이지만 부당한 대우, 보상, 열악한 작업조건, 과도한 업무 등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1].

본 연구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음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은 음주동기였으며, 그 중에서 사교동기와 동조동기가 문제음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Cho [33]의 우리나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제음주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사교동기가 높을수록 문제음주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이었다. Kim & Rhee [31]의 우리나라 직장인을 대상으로 음주행위를 분석한 연구에서 음주동기 중에서 고양동기, 대처동기, 사교동기의 목적으로 음주를 하게 된다면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음주동기 중 사교동기는 사람들이 근무 후 음주를 할 때 조직 내 생활이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구성원 상호 교환 작용에 있어 부정적 기대를 낮게 인식하게 되어 음주를 보다 많이 하게 되거나 주도적 성향이 강한 구성원에 의해 음주를 하게 될 경우 음주를 하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난다[31].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와는 다른 문화적인 특수성 때문에 마음속에 쌓인 감정의 응어리도 술을 한 잔 해야 쉽게 풀 수 있다고 믿고, 또한 술에 취해야만 서로 속마음을 드러내 놓을 수 있으며 친해질 수 있다고 믿고, 술이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시켜 주는 효율적인 수단이나, 사교의 촉매제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34]. 동조동기는 자발적인 의지가 거의 없이 마지 못해서 술을 마시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24]. 따라서, 사교동기와 동조동기는 음주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의 원천이 외부에 있다는 것은 같아 보이나 동기

가 자발적 의사인가에 따라 구분을 하게 된다. 사교동기는 스스로가 술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조동기는 타인의 의사 및 권유에 의한 통제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서로 특징이 다르다[31]. 동조동기는 음주를 적게 하거나 음주를 하지 않을 경우 조직 내 상사나 동료로부터 소외 당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고, 음주를 통해 호감을 얻고자 한다. 이렇듯 동조동기에 의해서 음주를 할 경우 비자발적인 음주를 하게 되고, 이는 단기적으로는 구성원의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이탈 행동을 증가시켜 조직응집력을 낮추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31].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하위변인 중에서 향수병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미 한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하위변인 중에서 향수병이 가장 높게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를 나타내었다[35]. 향수병은 대상자가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고 적응하면서 겪게 되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심리적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울 및 불안과 같은 감정적인 것이 음주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음주와 관련된 자료가 제한적이고 선행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통해 지속해서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음주동기,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제음주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로서 본 연구 결과 음주동기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제음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음주동기의 하위영역인 사교동기와 동조동기, 문화적응 스트레스 하위영역인 향수병이었으며, 이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사교동기였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음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음주동기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활용한 다방면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아시아 6개국 출신의 조선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으나, 6개국 이외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도 다수 국내 사업체에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가 외국인 근로자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다양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문제음주를 살펴보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한국내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문제음주가 발생할 위험이 커짐을 고려할 때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음주동기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문제음주를 39.5% 설명하였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음주를 좀더 민감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변수인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음주문화 등을 고려한 후속 연구를 고려해 볼 만하다.

## REFERENCES

- [1] I. Y. Cho. (2010).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in foreign migrant workers on their anxiety speaking korea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2] O. S. Yeo. (2014). *A study on the health reliability and mental health of foreign workers focused on the influence of health and environmental factors* Doctoral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Seoul.
- [3] O. S. Yeo. (2004). *A study on the medical service increment for the foreign labor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 [4] J. H. Lee. (2015). Drinking and determinants of foreign worker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16(1), 29-40.
- [5] D. M. Kim. (2016). Analysis on the effects of the korean language ability level,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ve stress of migrant laborers on life satisfaction: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hop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4), 89-100.  
DOI : 10.14400/JDC.2016.14.4.89
- [6] D. A. Dawson, B. F. Grant & W. J. Ruan. (2005). The association between stress and drinking: modifying effects of gender and vulnerability. *Alcohol and Alcoholism*, 40(5), 453-460.  
DOI : 10.1093/alcalc/agh176
- [7] I. Y. Yoo, J. Y. Choi & M. H. Jung. (2004). Level of problem drinking, health status and perception of need



- for moderate drinking by male blue-collar workers in steel factory. *Korean J Occup Environ Med*, 16(4), 467-474.
- [8] I. C. Roh, M. H. Seo & H. R. Kim. (1997). Economic and social costs of drinking and policy task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1-116.
- [9] J. H. Ku, J. S. Kim, J. H. Choi & Y. B. Kim. (1999). *Understanding of Industrial Welfare Studies*. Seoul : HongIlkjae.
- [10] E. K. Lee. (2015). Factors related to problem drinking of male workers according to occupational clas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 375-382.  
DOI : 10.14400/JDC.2015.13.1.375
- [11] J. S. Kim, J. K. Lee & S. K. Chung. (2013). Meta-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problem drinking.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14(2), 1-18.
- [12] Ministry of Justice. (2016). Korea Immigration Service Statistics.  
[http://www.moj.go.kr/doc\\_html/attach/moj/f2017//20170621287244\\_2\\_1.pdf.files/PDFBook.html](http://www.moj.go.kr/doc_html/attach/moj/f2017//20170621287244_2_1.pdf.files/PDFBook.html).
- [13] W. W. Shin. (2010). A study on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vulnerability factors on alcohol problems: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 of drinking motives. *Journal of Social Science*, 21(3), 81-105.
- [14] H. W. Shin. (1998). *The effects of personality and drinking motivation on drinking problems*.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15] Y. M. Ha & M. R. Jung. (2015). Factors associated with problem drinking in Korean male employees for drinking motivation, job stress, and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4(1), 48-56.  
DOI : 10.5807/kjohn.2015.24.1.48
- [16] H. J. Kim. (2013). *A study on social exclusion of foreign workers: Focused on Gyeongsan industrial complex ca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17] J. D. Hovey & C. G. Magana. (2002). Psychosocial predictors of anxiety among immigrant Mexican migrant farmworkers: implication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8(3), 274-289.  
DOI : 10.1037/1099-9809.8.3.274
- [18] J. W. Berry.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6), 697-712.  
DOI : 10.1016/j.ijintrel.2005.07.013
- [19] S. H. Lee, Y. J. Lee, S. Y. Kim & S. J. Kim. (2009).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ve stress in migrant workers. *J Korean Acad Nurs*, 39(6), 899-910.  
DOI : 10.4040/jkan.2009.39.6.899
- [20] D. Lin et al. (2005). Alcohol intoxication and sexual risk behaviors among rural-to-urban migrants in China. *Drug and Alcohol Dependence*, 97, 103-112.
- [21] M. D. Kim & C. H. Lee. (2016). A study on relevance between workers' job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by job stress in small & medium sized enterpri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5), 207-215.  
DOI : 10.14400/JDC.2016.14.5.207
- [22] F. Faul, E. Erdfelder, A. G. Lang, & A. Buchner.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4), 1149-1160.  
DOI : 10.3758/BRM.41.4.1149
- [23] B. O. Lee, C. H. Lee, P. G. Lee, M. J. Choi & K. Namkoong. (2000).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K)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Addiction Psychiatry*, 4(2), 83-92.
- [24] H. W. Shin & S. Y. Han. (1999). A preliminary study for developing drinking motives scal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Social Issues*, 5(1), 77-92.
- [25] D. S. Sandhu & B. R. Asrabadi. (1994). Development of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435-448.  
DOI : 10.2466/pr0.1994.75.1.435
- [26] B. H. Lee et al. (2014). Differences in sub-scores of the Korean versions of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K) according to at-risk drinking in a general male popul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diction Psychiatry*, 18(2), 80-88.
- [27] J. Jekarl, K. K. Kim & J. T. Lee. (2010).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drinker's characteristics, work environment, and alcohol problems among employe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28, 5-31.
- [28] S. H. Choi. (2007). Alcohol-drinking state and determination of problem and binge drinking among the southwest Asian migrant workers.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8(1), 49-64.
- [29] J. G. Go. (2009). *Actual health care conditions of foreign work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Haany University, Daegu.
- [30] O. Kim & H. O. Jeon. (2012). Relations of drinking motives and alcohol consumption in Korean male office

workers. *Psychological Reports: Disability & Trauma*, 111(3), 963-970.

DOI : 10.2466/18.06.13.PR0.111.6.963-970

- [31] D. S. Kim & J. H. Rhee. (2014).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s of alcohol drinking expectancies of employee between drinking motives and drinking culture at the workplace. *Korean Academy of Organization and Management*, 38(4), 1-26.
- [32] J. H. Kim & B. M. Kim. (2017). Factors influencing acculturative stress of migrant worke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8), 277-287.  
DOI : 10.14400/JDC.2017.15.8.277
- [33] E. H. Cho.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alcohol expectancies, sensation seeking, and problem drink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hmyook University, Seoul.
- [34] H. W. Shin.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motives and drinking problem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Social Issues*, 5(1), 93-109.
- [35] S. H. Lee. (2012).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drinking problems of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23(4), 366-375.  
DOI : 10.12799/jkachn.2012.23.4.366

조 정 의(Cho, Jeong Eui)

[정회원]



- 2012년 6월 ~ 현재 : 거봉백병원 간호부장
- 2016년 3월 ~ 현재 : 경상대학교 박사과정 중
- 관심분야 : 건강증진, 건강교육
- E-Mail : dapt321@hanmail.net

하 영 미(Ha, Yeong Mi)

[정회원]



석사

- 2011년 3월 ~ 현재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 2010년 8월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간호학 박사)
- 2006년 8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 석사
- 관심분야 : 웰니스, 건강증진, 건강교육
- E-Mail : yha@gnu.ac.kr

박 기 수(Park, Ki Soo)

[정회원]



▪ E-Mail : parkks@gnu.ac.kr

- 2006년 3월 ~ 현재 :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 2004년 2월 : 경북대학교 의학박사
- 1999년 2월 : 경북대학교 의학석사
- 관심분야 : 만성질환정책, 노인건강